

대졸여성 취업문 더 좁아진다

여성자원금고 대책 토론회등 큰 관심

대기업의 남자대학생 중심 인턴사원제 실시, 경기침체 등으로 대졸여성 취업난이 어느해보다도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여성계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92년도 대학졸업예정자 17만명 가운데 여학생수는 6만2천여명. 이 가운데 졸업 뒤 결혼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을 뺀 5만3천여명과 몇년 동안 누적된 미취업자 5만여명을 합치면 일자리를 찾는 여성은 10만명을 웃돈다.

그러나 여대생들의 취업욕구는 날로 높아가는 데 비해 여성인력을 원하는 기업은 드물어 해마다 졸업생 가운데 34% 남짓만이 취직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각 대학교는 부설 직업보도실을 통해 남학생뿐 아니라 취직을 원하는 여학생들을 위해 여성인력을 구하는 기업과 연결해주는 작업과 취업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또한 각 대학교 여학생회에서도 취업관련 자료집 발간, 강연회, 대자보 등을 통해 여대생 취업난을 사회문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여성계에서도 여대생 취업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성취업 정보기관인 여성자원금고(대표 김근화)가 18일 오후 서

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연 '기업과 여성인재와의 만남'은 여성 취직난을 헤쳐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자리로 관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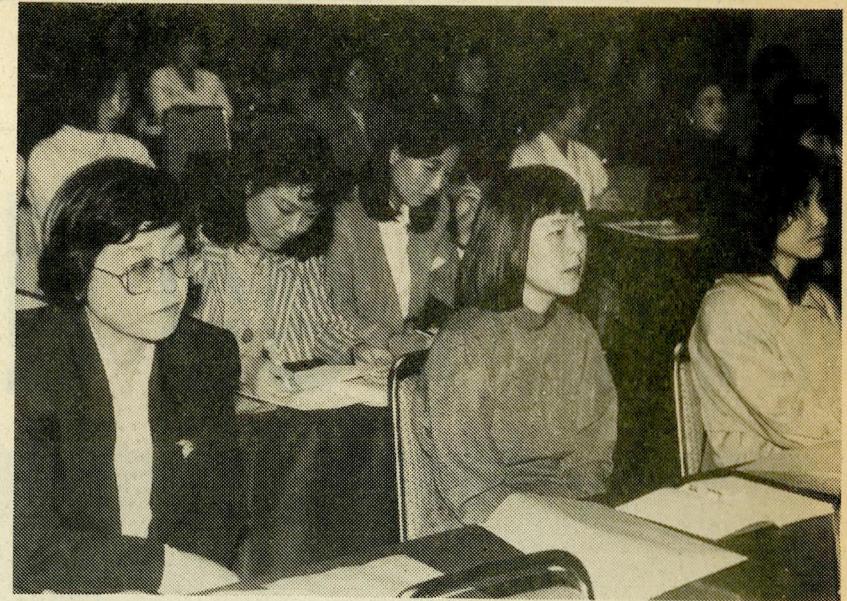
한국IBM, 서울컴퓨터자재(주) 등 7개 기업체의 기업설명회, 전문직 여성의 취업준비자세 조언, 토론회 '여성취업의 벽, 이렇게 넘자' 등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참석한 여대생 1백여명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회의장에 마련된 취업 상담코너에선 한국IBM, 국민생명보험(주) 등이 입사원서를 배부하며 모집인원과 장기적 전망 등을 즉석에서 상담해줘 기업의 적극적인 여성인력 구인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스탠더드 체터드 은행 전태옥 인사부장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듯이 대학졸업 뒤 취업을 위해서도 취업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스스로 '내 실력 진단표'를 작성해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 자신의 적성과 능력 등을 점검해보는 것이 취업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은행

에 취직하고자 할 때 시험과목 준비 못지않게 신문·잡지 등에 실린 외국인은행 관련기사 스크랩과 분석, 경제동향 파악 등 적극적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온 연세대 직업보도실 김봉주 실장도 "심각한 여대생 취업난을 뛰어넘기 위해선 대기업, 국영기업체 등 공기업만을 선호하는 자세에서 중소기업으로도 눈을 돌리고, 전공을 살

여성자원금고가 18일 연 '여성취업의 벽, 이렇게 넘자' 토론회에는 많은 여성이 참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유창하 기자>



취업률 34% 불과...올 10만여명 기다려 “국가적 낭비...‘고용특례법’ 등 서둘러야”

려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취직한 선배들과 자주 연락해 인맥을 통해 비는 자리를 메우는 외국인 은행, 중소기업체

취직을 알아보고 △이력서를 쓸 때 딱딱한 서술식보다는 자기 소개를 수필식으로 하고 △입사원서에 붙이는 사진도 야외에서 찍은 스냅사진을 붙이는 등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김

실장은 조언했다.

이번 모임을 주최한 여성자원금고 김근화 대표는 "고등학교와 전문대의 취업률이 80%인 데 비해 여대생의 취업률은 34%밖에 안돼 대부분의 고급 여성인력이 사장되고 있다"면서 "사회발전을

위해서도 고급 여성인력의 활용방안이 여성계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정부, 기업 차원에서도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강연을 한 서울대 박수일 교수(경제학)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인력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고 지적하고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가칭 '여성고용특례법'을 만들어 정부나 기업, 사회단체 등이 반드시 여성을 20%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쉬워만시 무거운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신연숙 기자>